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주담대 증가 폭 큰 폭으로 확대
- 특례보금자리론 제외한 은행권 2Q 대출증가율 1% 내외 예상
- 결제성예금 감소 양상 지속되면 NIM 둔화압력으로 작용

6월 여수신동향: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

Analyst 전배승 - 02 3779 8978 - bsjun@ebestsec.co.kr

5월에 이어 6월에도 가계대출 큰 폭 증가

- ▶ 6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272조원으로 전월 대비 11조원 증가하며 5월과 동일한 증가율(+0.5% MoM)을 기록. 1~4월 월평균 증가율이 +0.2%였음을 감안하면 5월 확대된 증가 폭이 6월에도 이어지고 있음
- ▶ 5월에 이어 부진했던 가계대출이 6월 중 5.9조원 증가하며 2021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기 때문.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98조원 증가하며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함. 이는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물량 증가 및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전환의 결과
- ▶ 기업대출의 경우 5.5조원 증가하며 4~5월의 7.5~7.8조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됨.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개인사업대출 역시 2,000억원 증가에 그쳐 3~5월 평균 1조원 가량 증가했던데 반해 크게 둔화됨. 반기말 기업과 은행의 재무비율 관리 조치의 영향
- ▶ 한편 수신부문에서는 결제성예금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하락률은 -14%를 기록해 4~5월에 비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 모습. 정기예금을 포함한 고금리예금의 경우 20% 수준의 높은 증가율 유지

2Q 대출증가율 1% 내외 예상. NIM은 둔화양상 지속

- ▶ 4~6월 중 총대출 증가율은 1.5%(정책모기지론 포함)로 나타나 지난 1분기의 0.5%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 다만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를 제외한 순수 은행대출의 경우 이보다 증가 폭이 적을 것으로 보여 2분기 중 은행권 대출증가율은 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수신부문의 경우 결제성예금 이탈이 지속되며 은행권 조달부담 증가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2분기 중 은행권 NIM은 일부 은행의 경우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반적으로 대출금리 상승 폭 둔화와 조달부담 상승으로 둔화추세를 이어갈 전망

그림1 일반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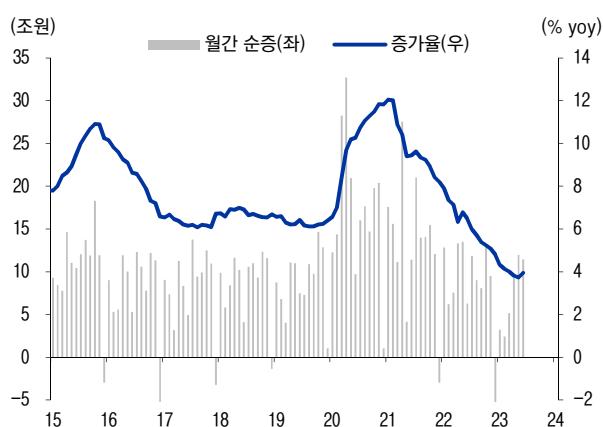


그림2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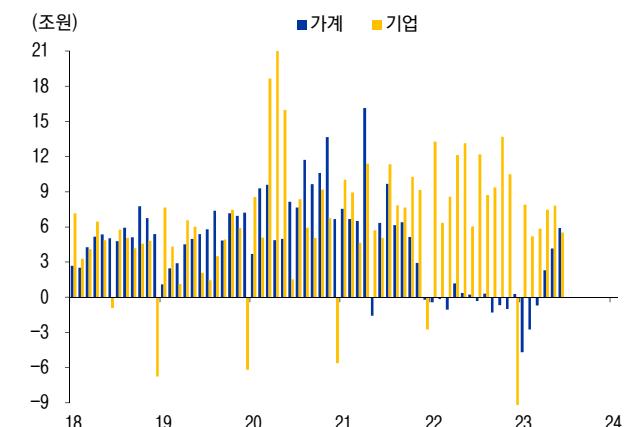


그림3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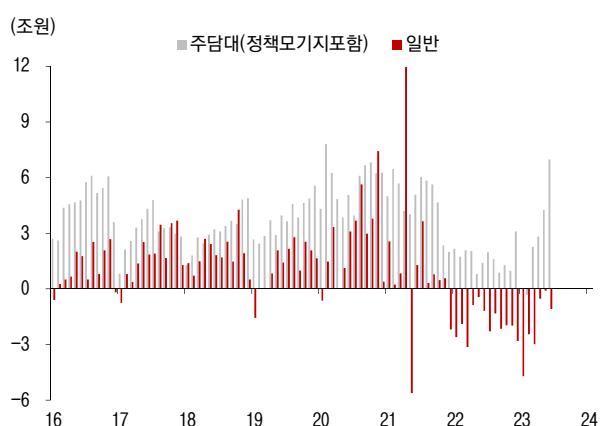


그림4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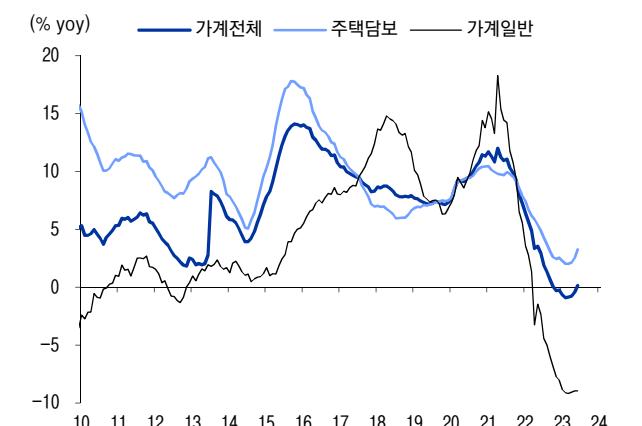


그림5 가계대출 중 정책모기지 월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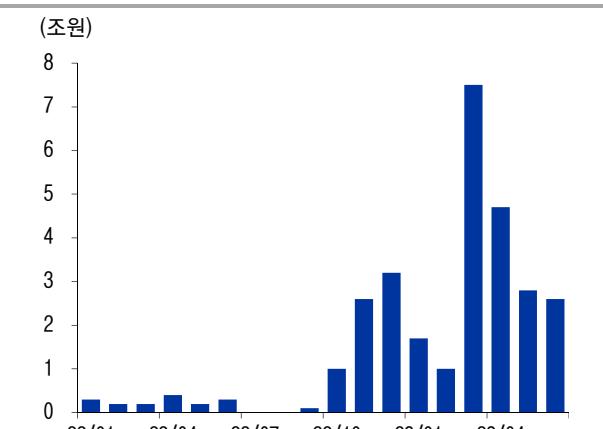


그림6 가계대출 중 정책모기지 제외 부문 월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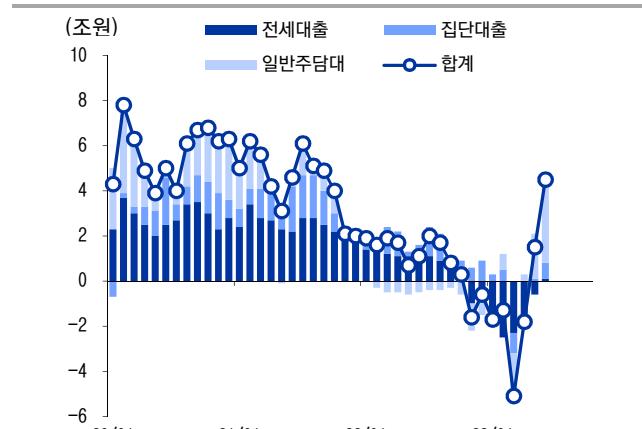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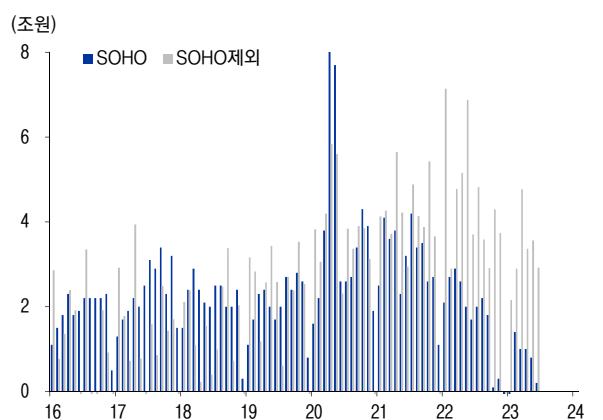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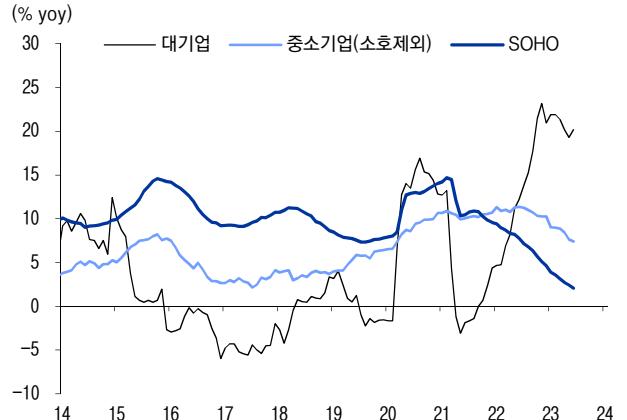


그림7 중소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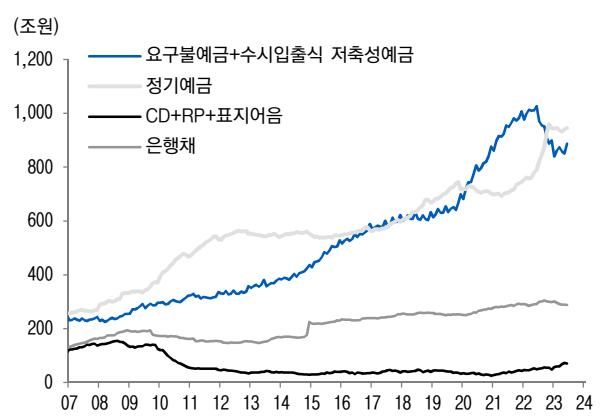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총수신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부문별 수신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이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4.0% 6.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20%에서 ±15%로 변경